

# 현대차그룹 모셔널, 연내 美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목표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행 연말엔 SAE 레벨 4 서비스 제공 방침 실질적 '수익모델' 창출단계 진입 중장기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공개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석권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고도화 전략도 공개했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모셔널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모셔널은 올해 초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현대차그룹이 모셔널의



모셔널 로보택시가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주행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대규모 사업 확정안으로,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모델' 창출 단계에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모셔널이 상용화의 첫 무대로 라스베이거스를 낙점한 것은 독특하고 복잡한

교통 환경과 엄격한 승차 규정 등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입증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모셔널은 2018년부터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화 준비를 단계적으

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사장 겸 CEO는 "상용화는 고객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의 준비 상태를 입증하는 단계"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운영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셔널은 기술의 진보와 동시에 안전을 우선(Safety First)하는 자율주행 개발 철학도 강조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정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고, TÜV SÜD 등 독립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차량과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고 밝혔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CEO는 "자율주행은 사람의 실수 없이 주행하는 차량이라는 근본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기술"이라며 "모셔널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기술 개발 원칙을 강조했다.

또 모셔널은 중장기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도 공개했다. 모셔널은 기존 모듈형 자율주행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머신러닝 기반 엔드투엔드(E2E) 모션 플래닝 중심의 통합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와 학습 모델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대 주행 모델(LDM)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범 운영에 투입될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는 기존 구조와 E2E 기술이 병행 적용돼 있으며, 주행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자율주행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AVP본부와 포티투닷, 모셔널 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 로보택시 상용화 과정에서 축적한 레벨 4 운영 경험과 안전 검증 체계를 SDV 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그룹 전반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정책자금 브로커 뿌리 뽑는다... 한계기업 지원도 강화

### 중기부 소관 기관 업무보고

중진공 등 정책자금 부당개입 TF 꾸려 정책자금 신청·확인 쉽게 만들어야

중진공, 한은 등과 한계기업 기준 맞춰 소진공,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기부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

다. 6년간 관련 신고가 29건에 그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고해도 실익이 없었다"면서 "중진공 지역 본·지부에 신고담당을 지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19명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전담반'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소진공 역시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를 지난달 말부터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했고 체계적인 신고 대응 매뉴얼도 구축했다.

신보중앙회도 지난달 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있는 17개 지역신보와 공동 대응해 불법브로커를 근절해나갈 방침이

다. 기보도 ▲브로커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포상제도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진흥원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당개입 이전의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최근 브로커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브로커가 생기는 이유는 생업에 바쁜 분들이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려면 서류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신청·집행)도 최대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과 재도전 환경도 강화한다.

중진공의 경우 '한계기업' 기준을 한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 기준에 맞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으로 일원화했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있을 때 폐업시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생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생계비도 추가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기 위해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책 실행이 지연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들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성과 중심의 정책 집행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정책 홍보와 전달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가 정책 전환의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장 변화와 고객 체감을 기준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는 적극 개선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 소매 유통업계, 고물가·고환율에 계절 비수기까지 '접착제'

대한상의 '1분기 소매유통업 RBSI' 백화점, 기준치 유일 상회한 112 기록 대형마트, 가장 낮은 수준 전망치 64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환율 부담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망치는 79로 집계됐다. RBSI는 유통업계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은 그 반대를 뜻한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기조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환율로 인한 매입 원가 상승과 인건비 등 고경비 증가가 기업의 마진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늘고, 연말 성수기 종료 이후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RBSI 112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먹고(K-푸드), 바르고(K-뷰티), 입고(K-패션)'으로 대표되는 K-소비 열풍에 원화 약세가 더해지며 해

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잡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견조한 명품 소비와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 호조가 맞물리며 성장 기대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쇼핑은 82로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오프라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됐다. 고물가 여파로 합리적 소비 성향이 강화되면서 가격 비교가 쉽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채널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과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도 소비자 유입을 견인하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는 64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전망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따른 장바구니 지출 감소와 함께 온라인 채널과의 신선식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인 가구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더해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등 고경비 상승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편의점 역시 65로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인건비 상승 부담이 더해진 영향이다. 근거리 점포 간 출점 경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한계점포의 폐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슈퍼마켓은 67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의 소량 구매 전략 강화와 편의점의 취

급 품목 확대 등 근거리 유통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에너지 요금 등 운영 고정비 상승이 수익성 개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 정체와 경기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시장 개척이 유통업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전 유통학회 회장)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한류 열풍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류 연계 마케팅,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유통산업이 제조와 콘텐츠를 잇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